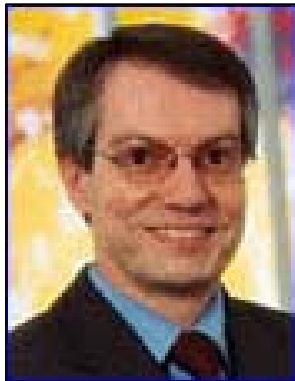


BYK, 한국 필두로 아시아 시장 주목

한국 시작으로 세계지사 순회 ... 국내 첨가제 시장 중요성 강조할 듯

세계적인 첨가제 생산기업인 BYK-Chemie의 Dr. Roland Peter 회장이 5월17일부터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BYK-Chemie 한국지사는 Dr. Roland Peter 회장의 한국방문이 매년 11월 있던 전세계 지사 순회가 2003년 그룹 내부사정으로 취소되면서 2004년에는 5월로 앞당겨진 것이라고 밝혔다.



Dr. Roland Peter 회장은 한국 일정기간 동안 지사 직원들과 대리점 미팅을 가지고 국내 첨가제 시장의 현황을 보고 받은 후 16일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Dr. Roland Peter 회장은 한국을 시작으로 일본, 중국을 거쳐 동남아시아 지역에 분포해 있는 BYK-Chemie 전 지사를 방문할 계획이다.

한국은 BYK-Chemie 전체의 매출액 중 6, 7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일본(3위)이나 중국(5위)의 첨가제 시장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시장점유율 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치를 점하고 있어 BYK-Chemie 내부에서도 중요한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다.

Dr. Roland Peter 회장

Dr. Roland Peter 회장은 1998년부터 ALTANA 그룹 자회사 BYK-Chemie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초기 정기방문 당시부터 국내 관계자들과의 만남에서 한국시장의 중요성과 향후 시장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03년 ALTANA 그룹의 매출액은 27억3400만유로를 기록했으며 BYK-Chemie는 7억5500만유로로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심주영 기자>

<화학저널 2004/05/17>